

宗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애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지이다

清州韓氏報

發行人 韓台洛
編輯人兼主幹 韓鍾仁
印刷人 裴成漢
1976년 11월 1일 창간

중앙종친회 2024년도 정기총회 개최 태락회장, 제28대 중앙종친회장에 재선

상렬동회 감사 선임, 결산(안) 및 예산(안) 등 의결

중앙종친회(회장 태락)는 지난 3월 13일(수) 11시 신촌소재 K-Turtle에서 갑수명예회장, 기호·추태고문, 태락회장, 길수회장, 선교회장을 비롯 종과문중 및 광역 시도회장과 대의원 등 16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종인상무이사의 사회로 성원보고와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주요참석임원 소개, 회장인사, 2023년도 주요경과 및 종무보고, 감사보고 후 부의 의안을 상정하고 심의하였다.

태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갑수명예회장, 기호·추태고문, 길수·선교회장 등 바쁜 시기임에도 원근거리에서 많이 참석해주신 임원 및 대의원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우리 청주한문은 역사 이래 가장 훌륭한 인재를 배출한 삼한갑족의 명문성씨이다. 선조님의 음덕에 감사드리며 청주한문의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생활하고 있다. 우리 후손들은 훌륭한 선조님의 뜻을 이어받아 화합돈목하며 종사를 발전시키고 청주한문을 명문거족으로 더욱 빛낼 수 있도록 뜻을 하나로 모아 정진 노력해 나가야 한다. 매년 3

월에 개최하는 중앙종친회의 큰 행사인 오늘 정기총회에서는 전년도 사업결산과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임원개선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한다. 특히 28대 중앙종친회장을 비롯해 임원을 개선하는 중요한 총회이다. 공정한 선거가 되고 더불어 선거 결과에 승복하며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성원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청용의 힘찬 기운을 받아 만사형통하고 일취월장하는 보람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인사하였다.

부의 안건의 상정과 심의를 통해 세입합계 1억 9,317만원, 세출합계 1억 8,423만원, 차기이월금 894만원의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인터넷정보 운영에 관한 결산(안)을 승인하고 감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은 운영비와 위선사업 특별 헌성금 및 유적 수호관리 비용 충당을 위한 찬조금 등 현실성을 고려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2천만원이 감축된 2억 5,500만원 규모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 가결하였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제28대 중앙종친회장에 현 27대 태락회장이 참석



한태락
중앙종친회장

〈태락회장 주요 프로필〉

- 경북 경산 (철도공파), 영남대학교 및 동대학원 석사, 박사(응용전자공학)
- 제27대 중앙종친회장, 자연보호중앙연맹 자문위원, (주)대림환경 대표이사
- 경산시의원(전), 민주평통자문회의 경산시위원(전), 한국자유총연맹 경산시회장(전)
-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총동창회장 역임

대의원 분들로 부터 큰 폭의 지지를 받아 재선되었으며, 상렬평간공파 총무이사과 동회 삼재관리위원장이 신임감사로 선임이 되었다. 태락회장은 수락인사를 통해 임원 및 대의원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다시 한번 봉사의 기회를 주심에 더 없는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오늘 함께 경선한 후보자분들과 의사를 표명해주신 대의원분들의 뜻을 존중하고 마음 깊이 새기겠다. 새로운 각오로 대의원분들과 지혜를 모아 소통하고 화합하는 종친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선을 하다보면 갈등과 후유증이 없을 수가 없다. 분열과 후유증이 없는 선거문화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삼한갑족의 훌륭한 선조님의 유지를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서 청주한문의 위상을 제고함에 모두가 한 뜻으로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 종사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나가겠다고 밝히고 임원 및 대의원분들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하였다.

이어 종사운영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갑수대전회장은 중앙종친회와 회장의 위상을 제고하고 화합돈목을 위해서는 중앙종친회장 선출방식을 경선이 아닌 추대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 자리에서 결의하고자 제안함에 대의원들은 큰 박수로 동의하고 지지함을 표명하였다.

중앙종친회장 취임 축하화환 보내주신 분

- 충성공파종중회 회장 한선교
- 검교침판공파종중회 회장 한진수
- 문양공파종중회 회장 한석희
- 참판공파종중회 회장 한일용
- 찬성공파종중회 회원일동
- 절제공파종중회 회원일동
- 절도공파직장공종중회 회원일동
- 부산시종친회 회장 한동경
- 대전시종친회 회장 한갑수
- 무강왕수호대책위원장 한의구
- 청문회 회장 한석구
- 한영회 회원일동
- 마포종친회 회원일동
- (전)경제부총리 최경환

중앙종친회장 취임을 축하해 주신 중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앙회 집행부 임원 선임

중앙종친회 태락회장은 지난 3월 28일 수석부회장에 삼랑, 기획부회장에 진수, 조직부회장에 근준, 제전부회장에 의구, 섭외부회장에 일용, 유적관리부회장에 재철, 장학부회장에 종수, 시근종무부장, 황제전부장, 순자여성부장, 인숙장학부장 등 집행부 임원을 선임하고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태락회장은 원만한 종사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직무분야에 적임자분들을 부회장과 부장으로 선임했음을 밝히고 원만한 종사운영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나가자고 독려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부와 논의



집행부 임원 선임 기념

후 조직과 임원을 재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집행부 임원분들은 종사운영과 화합

발전을 위해 중앙회장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적극 성원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장학회 2024년도 정기이사회 개최

전년도 결산(안) 및 사업예산 조정(안) 승인



태락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5월 18일(토), 장학증서 수여식

(재)청주한씨장학회(이사장 태락)는 지난 3월 27일(수) 태락이사장을 비롯 이사 및 감사 등 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회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안심의와 장학재단의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전년도 사업실적과 감사보고에 이어 세입·세출 결산(안)과 과실소득 증대에 따른 2024년도 사업예산 일부조정(안)을 승인한 후 과실금액 증대를 위한 장학기금 운영방안 등의 논의에 이어 제3회 장학금 지급액 및 배정기준을 확정된 후 오는 5월 18일(토) 청주 시조묘역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시

행기로 결의하였다.

태락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근 거리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 임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현재까지는 정기에금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점차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학기금 확충을 통해 과실금액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장학금 지급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장학재단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청주한문의 위상에 걸맞은 장학재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에 임원분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하였다.

(장학증서 수여식 행사 및 관련 내용은 278호에 게재 됩니다.)

장단선영운영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2024년 예산 승인, 춘계 세향 봉행 등 논의



장단선영운영위원회 정기총회

장단선영운영위원회(회장 윤동)는 지난 3월 19일(화) 태락중앙회장, 선교사숙공추모회장, 운동회장 등 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로3가 한일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년도 결산 및 2024년도 예산(안)을 가결한 후 4월 5일에 봉행하는 춘계 세향 봉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선교회장, 운동회장, 태락회장은 인사말과 격려사를 통해 참석한 임원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사숙

공부군 및 평간공부군 등 선조님의 훌륭한 유지를 받들고 일가 간 화합돈목을 통해 종사 운영 및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자고 독려하는 한편 임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장단선영운영위원회는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일원 비무장지대에 소재한 사숙공부군, 평간공부군, 문경공부군, 충간공부군, 판사공부군의 묘소와 세향 봉행 등의 관리를 위해 결성된 협의체이다.

광주광역시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신임 永棼회장 선임 및 규약 개정 등 승인

광주광역시종친회(회장 상원)는 지난 5월 8일 임원 및 대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서구소재 뉘지한마당 2층 연회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2대 신임회장으로 영오(永棼, 안양공과31세)일가와 신임감사(성수.광진일가) 등 집행부 임원을 선임하고 규약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신임 영오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임회장 및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회장으로 선임해준 일가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광주광역시종친회의 발전과 종원간 화합돈목을 통해 시조부군을 비롯해 삼한갑족이며 명문거족의 위상을 드높인 선조님들의 명성에 누가되지 않는 자랑스러운 후손이 되도록 일조할 것



광주시종친회 정기총회

이며, 특히 광주와 가까이 있고 청주한문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영광삼재관리위원회의 유지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광주종친회가 되도록 힘써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종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신임 영오회장은 전남도청, 동아일보, 한국행정발전연구원 이사장, 민주평통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광주종남부회장)

대구·경북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전년도 결산(안) 및 금년도 예산(안) 등 가결



정기총회 개최 기념

대구·경북종친회(회장 국선)는 지난 5월 4일(토) 국선회장, 강락명예회장, 태락중앙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수성구 과동소재 청한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국민의례, 참석임원 소개, 회장인사, 강락명예회장과 태락중앙종친회장의 축사와 감사보고에 이어 부의

의안을 통해 결산(안) 및 예산(안)을 가결하였으며 종사 현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본 총회에는 절도공과 30명, 몽계공과 7명, 문정공과 6명, 충성공과 2명, 문양공과, 참판공과, 양절공과, 첨지공과, 정랑공과, 정당공과, 양이공과, 절제공과 후손 등이 참석하였다.

(대구경북종친회 일식홍보이사)

광주광역시종친회 제12기 집행부 임원현황

고 문 : 창화 (제10대 광주광역시회장)	상원 (제11대 광주광역시사회장)
감 사 : 성수 (JS종합건설대표)	광진 (5.18단체 전사무총장)
상임부회장 : 종남 (동방항공여행사대표)	
총무이사 : 종연 (해태스포츠타워)	재무이사 : 상훈 (서울인테리어대표)
동무회장 : 상민 (신광씨리대표)	법률부회장 : 상중 (법무법인대표변호사)
서구회장 : 동훈 (광주고시학원장)	조직부회장 : 종석 (전 광주은행장)
남구회장 : 동석 (전 시청과장)	제전부회장 : 홍규 (전교육청행정국장)
북구회장 : 평만 (법률사무소)	여성부회장 : 희자 (한희자여행나라대표)
광산회장 : 상효 (영암군청과장)	홍보부회장 : 신구 (mbc 보도국장)

시조 「태위위양공」 부군 탄신제 봉행

시조탄생유지 청한각 경내에서



시조부군 탄신제 봉행

중앙총친회(회장 태락)는 지난 4월 13일(토) 태락중앙회장을 비롯 삼랑.선교.윤동.상락회장 등 전국 각지에서 7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조 부군의 탄생유지인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 청한각 경내에서 갑진년 시조 태위위양공부군의 탄신제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초헌관에는 선교총성공과회장, 아헌관에는 윤동평간공봉찬회장, 종헌관에는 상락서울총친회장, 축관은 경(판사공과)일가가 각각 분방되었으며 의구제전부회장의 집례로 진행되었다.

태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향각지에서 많이 참석해주신 일가분들께 감사사를 전하고 청한각 건립 경위에 대한 경

과와 함께 본 사업을 주도적으로 주관하고 훌륭하게 추진해주신 갑수명예회장의 노고에 존경하고 감사드린다. 다 함께 갑수명예회장님께 힘찬 박수로 감사함과 건승을 기원드리자고 제의함에 참석한 일가분들은 큰 박수로 화답하였다. 이곳은 시조부군께서 탄생하실 때 인근 30리의 산과 흙이 땀을 흘렸다고 하여 토한(土汗)이라 지어 불렀는데 이는 하늘이 내 큰 아이가 태어났다는 뜻이고 큰 사람을 낳는데 하늘이 도와 산과 흙(土)에서 땀을 흘렸다는 뜻이다. 이어 토란에서 현재의 난곡으로 지명이 바뀌었고 강론을 하신 방화골 초당터에는 지금도 기왓장 등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앞으로 사료와 유물을 발굴하고 정비하여 문화재로 등록하고 청주한문의 성지이자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시조부군께서는 중년에 큰 뜻을 품고 청주지역으로 이주하여 향학을 일으키고 용개평야를 개척하여 부농을 이루었으며 고려 태조왕건을 도와 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워 최고위직인 삼중대광 문하태위의 벼슬에 오른 신 훌륭한 분이다. 이후 시조부군의 음덕으로 고려조와 조선조에 이르는 동안 수많은 왕비와 부마, 상신, 공신, 대제학,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는 등 최고의 명문가임에 청주한문의 후예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당당하게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삼재관리위원회 갑진년 춘향제 봉행



예빈경공부군 춘향제 봉행

추·모·봉(追·慕·鳳) 삼재조(三齋組)의 갑진년 춘계 시향제가 지난 4월 9일(음력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삼재관리위원회(회장 동희)주관으로 봉행하였다.

태락중앙회장, 동희회장 등 전국 각지에서 300여명의 후손들이 참여한 가운데 4월 9일 오전에는 6세 예빈경공(禮賓卿公.諱 光胤)부군의 묘소와 추원

재(追遠齋)에서, 오후에는 7세 문혜공(文惠公.諱 康)부군의 묘소와 모원재(慕遠齋)에서, 10일에는 8세 제학공(提學公.諱 謝奇)부군의 묘소와 봉강재(鳳崗齋)에서 각각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동희회장은 태락중앙회장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이 참사해 주신 일가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훌륭하신 선조님의 유지를 받들어 종사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화합돈목하며 청주한문의 명예와 위상을 더욱 빛내 나갈 수 있도록 함에 일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고려조의 문신이신 예빈경공의 묘소는 용사취회혈(龍蛇聚會穴)이라는 영광 최고의 명당이며 묘소의 발복으로 청주한문에서 수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었다고 믿고 있다. 공의 묘소와 추원재는 2021년 12월 31일 영광군 향토문화유산 제13호로 지정되었다. (삼재관리위원회 동업총무)

서원군(諱 方信.10世)부군 갑진년 세향 봉행

장흥면 소재 서원사에서



서원사 10위 선조 세향 봉행

지난 4월 20일(토) 장흥면 삼상리 소재한 서원사에서 길수회장 등 종원 약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원군(휘 방신.10세)부군 및 예하 선조 10위의 춘계 세향을 봉행하였다. 초헌관에 명로前世무서장, 아헌관에 윤동평간공봉찬회장, 종헌관에 관희총의공과이사, 축관에 덕수총의공과이사가 분방되어 용석총의공과이사의 집례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서원군(휘 방신. 미상~1376(우왕 2)은 高麗 恭愍王때의 文臣이요 武臣이시다.

恭愍王 四年(1355) 과거에 급제하시고 上將軍으로서 東北面 都兵馬使로 나가셨다가 樞密院 直學士로서 知貢擧를 겸하여 人才를 기르는데 공헌하시었고

여러 將軍들과 힘을 모아 20萬 大軍을 이끌고 흥건적을 몰아내고 松京을 수복한 功으로 守忠秉義協贊功臣인 一等功臣에 녹훈되고 국가행정을 총괄하는 宗이품의 政堂文學에 승진하시었다. 또한 女眞이 협공으로 침략하자 적을 대파하고 失地

를 완전 수복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에 王이 비단을 하사하여 그 공훈을 포상하고 연회를 베풀어 치하하면서 公에게 僉議贊成事 修文殿 大提學에 西原君을 봉하였다. 이때 元나라 順帝도 公에게 奉訓大夫 秘書監丞이라는 벼슬을 내렸다.

公의 묘소는 장단군 세곡산 先考인 思肅公墓所 안산에 소재한다고 하나 현재 휴전선내 지역임으로 이를 확인할 길이 없어 고양시 내유동 公의 증손 參議公 碩의 묘역에 설단하고 碑를 세워 향사를 봉행하여 오다가 2012년 1월 3일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玄孫 領議政 質景公 致亨의 묘역에 西原祠를 신축하여 향사를 봉행하고 있다.

9세 사숙공부군 춘계 세향 봉행

10세 평간공·11세 문경공.충간공.판사공부군도



사숙공부군 춘계 세향 봉행

지난 4월 5일, 태락중앙회장, 선교사숙공추모회장, 윤동평간공봉찬회장, 삼랑회장 등 경향각지에서 250여명의 일가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9세 사숙공부군(思肅公府君.諱 渥)의 갑진년 춘계 세향이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산 87번지 소재 선영에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되었다. 초헌관에 태락중앙회장, 아헌관에 삼랑중앙회수석부회

장, 종헌관에 복교일가, 축관에 동훈일가(문정공과)가 각각 분방되었으며 도영총무의 집례로 봉행되었다.

10세 평간공(平簡公.諱 公義)부군의 춘계 세향은 초헌관에 윤동평간공봉찬회장, 아헌관에 두환이조정랑공과회장, 종헌관에 재국판사공과회장이 분방되어 상렬총무의 집례로 봉행하였으며, 인근 일대에 묘소가 있는 11세 문경공(文敬公.諱 脩), 충간공(忠簡公.諱 理), 판사공(判事公.諱 齊)부군의 세향도 봉행되었다.

사숙공(원종 15년, 1274년~충혜왕 3년, 1342년)은 고려 충선(忠宣), 충숙(忠肅), 충혜(忠惠)왕조 때의 문신으로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현관(顯官)을 역임하였으며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에 책봉되고, 삼중대광도첨의우정승(三重大匡都僉議右政丞)에 올랐으며 69세에 별세했다.

문성대왕 춘계 대제 봉행



문성대왕 대제 봉행 기념

지난 4월 13일 (음 3월 5일) 기자조선(후조선)을 건국한 문성대왕 기자(文聖大王 箕子)를 추모하는 춘계제향이 추태고문, 동경회장, 이재영 증평군수, 배종록 증평농협조합장을 비롯 청주한문과 증평군 관내 유림 및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1리에 소재한 기성전에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초헌관에 이재영증평군수, 아헌관에 배종록증평농협조합장, 종헌관에 동경부산종친회장, 축관에 관우관공파회장이 분방되었으며 도영충성공과 총무의 집례로 봉행되었다.

추태고문은 인사말을 통해 화창한 봄날에 기성전에서 문성대왕 대제를 봉행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경향각지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 일가분들과

특히 이재영증평군수님과 배종록증평농협조합장님, 증평군의회의동맹의장님, 증평문화원 김장응원장님, 증평군청 문화관광과 이기원팀장님을 비롯해 제향봉행을 위해 성원을 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였다.

현재의 기성전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목조기와집으로 솟을대문에 홍삼문, 내삼문, 외삼문에 담장이 둘러있으며 영정은 이북화가 김이삼이 모사하였다. 2012년도에 갑수회장의 주선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건하였으며 최근에는 지붕 일부가 무너져 추태회장이 증평군의 지원으로 보수하였다.

기성전은 증평군 향토유적 제2호로 매년 음력 3월 5일 제향을 봉행하고 있다.

무강왕·왕비 갑진년 춘계 대제 봉행

익산시 석왕동 대왕릉에서



무강왕 및 왕비 춘계 대제 봉행

초헌관 동경회장, 아헌관 윤동희회장, 종헌관 삼랑 수석부회장

무강왕(武康王)과 무강왕비의 2024년 갑진년 춘계 대제가 중앙종친회(회장 태락) 및 팔봉왕릉종친회(회장 인식)주관으로 지난 4월 23일(음력 3월 15일) 오전 전북 익산시 팔봉면 석왕동 소재 익산쌍릉(益山雙陵)의 무강왕릉에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이날 대제는 태락회장과 인식회장을 비롯하여 동희감사, 길수·선교·상락·갑수회장 등 전국 각지에서 10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하였으며, 초헌관에는 동경부산종친회장, 아헌관에는 윤동평간공봉찬회장, 종헌관에는 삼랑수석부회장, 축관에 재철유적관리부회장이 분방되었으며 의구제전부회장의 집례로 진행하였다.

태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향각지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 일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 후 만물이 생동하는 봄철을 맞아 선조님의 유적지를 참배하고 유지를 받들며 유적을 수호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에 참여함은 보람 있고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곳은 마한의 태조 무강왕릉이자 복원(태원)선우씨, 청주한씨, 덕양(행주)기씨의 조상이라는 사실은 정사기록과 청주한씨의 족보에도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있고, 우리는 매년 음력 3월 보름날 이곳에서 무강왕과 왕비의 춘계대제를 봉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를 전후해서 익

산시와 청주한문이 대립하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익산은 마한 왕조의 중심이고 백제 무왕의 익산 천도기록은 찾아볼 수도 없다.

익산시는 서동과 선화공주로 역사를 왜곡하고 도로명을 무왕로로 변경하여 명명하고 이곳 무강왕릉도 무왕릉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역사 왜곡이며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일본의 행태와도 같다 할 것이다.

우리는 무강왕수호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익산시를 상대로 강력 대응함으로써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지만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고 역사 왜곡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력하게 밝히고 무강왕릉을 수호 보전하는 사업추진에 전 일가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당부하였다.

무강왕은 기자조선(箕子朝鮮)의 마지막 왕인 41세 애왕(哀王)이자 삼한(三韓)중 하나인 마한국(馬韓國)을 세운 태조(太祖)이며, 마한 말년의 8세 원왕(元王)의 둘째 아들 우랑(友諒)이 상당(上黨)한씨(청주한씨)가 됨으로써 청주한씨의 선조가 된다.

따라서 청주한씨는 왕족의 후예로 자타가 공인하는 삼한갑족(三韓甲族)이며 명문중의 명문이다. 원왕의 장남 우평(友平)은 복원(太原) 선우(鮮于)씨가 되고 3남 우성(友誠)은 덕양(德陽) 기(奇)씨가 되었다.

성종대왕비 공혜왕후 550주기 기신제 봉행



5월 9일(목), 파주 순릉(順陵)에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주최로

조선9대 왕 성종의 원비인 공혜왕후(恭惠王后) 한씨(韓氏) (1456~1474)의 제 550주기 기신제 제향이 지난 5월 9일(목)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에 자리한 삼릉(사적 제205호,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내 순릉에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주최,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선순릉봉향회 주관으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우리 청주한씨 문중에서는 도영일가(사진, 충성공파)가 참여하여 아헌관으로 제례를 봉행하였다.

공혜왕후는 영의정 상당부원군 충성공 휘 명희(領議政 上黨府院君 忠成公 諱 明熙)의 딸로, 1474년 왕비로 봉해진 지 5년 만에 창덕궁 구현전에서 1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그 해 6월 7일 현 위치에 안장되었다.

비각에 보호된 비석은 1817년 9월에 세운 것으로, 전면에 '조선국공혜왕후순릉'이라 새겨졌다. 봉분을 감싸고 있는 12칸의 난간석은 태조의 건원릉, 태종의 현릉 난간석을 본떠 만든 것이다. 병풍석을 세우지 않았을 뿐 조선 초기의 능제와 비슷한 형태이다.

파주 삼릉 경내의 공릉은 조선 8대 왕 예종의 원비 장순왕후 한씨(章順王后 韓氏, 1445~1461)의 능이다. 장순왕후는 1461년 세자빈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났고, 1472년 왕후로 추존되었다. 공혜왕후의 언니이다.

문간공부군 601주기 기신제 봉행

진접읍 금곡리 신재(信齋)사당에서



문간공부군 기신제 봉행

할아버지는 평간공 호부상서 휘 공의(諱 公義)이고, 아버지는 문경공 판후덕부사(判厚德府事) 휘 수(諱 脩), 어머니는 길창군(吉昌君) 권적(權適)의 따님이며, 배위는 마한국대부인 해주오씨(馬韓國大夫人 海州吳氏) 이시다. 64세로 졸하심에 나라에서 제문과 부의의 예에 따라

미두(米豆) 한지 등을 내렸고 영세부조(永世不祧)의 전례를 내렸다.

문간공파중중회 정석총무



문간공 사당 개보수 후 모습

문간공파중중회(회장 석구)는 지난 4월 15일(음 3월 7일) 석구회장을 비롯하여 문간공파 종파회장 및 일가 등 많은 후손이 참석한 가운데 진접읍 금곡리 소재 신재사당에서 문간공부군의 601주기 기신제를 봉행하였다. 초헌관에 윤석일가, 아헌관에 동경부산회장,

종헌관에 덕수일가, 축관에 상렬중앙회감사가 분방되었으며 종호제전부회장으로 집례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석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간공선조님의 601주기 기신제 봉행에 경향각지에서 많이 참석해주신 일가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훌륭하신 선조님의 유지를 받들어 화합돈목하며 종사 발전을 위해 일가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하였다.

한편 문간공부군의 사당이 여러 해가 경과되면서 금번 32년 만에 지붕 등 훼손된 부분을 개축과 개보수하여 새롭게 정비 단장한 후, 지난 5월 24일(음 4월 17일) 후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간공 배위(마한국대부인 해

주오씨)의 기신제를 봉행하였다. 초헌관 사구(검참공파), 아헌관 석희(문양공파회장), 종헌관 상대(문정공파), 집례 종호부회장 지난 4월 26일에는 청문회(회장 석구) 주관으로 한儉(검참공파 19세) 묘소와 배위 죽산박씨 정려정문을 참배한 후 문경공(諱 脩.11世)선조께서 글을 쓰신 신록사 보제선사 사리석종비(神勒寺 普濟禪師 舍利石鐘碑, 보물 229호)를 탐방하였다. 문간공(文簡公.諱 尙敬.12世.1360~1423)부군은 조선 개국공신으로 이조판서,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우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하신 문신이시며 글씨를 잘 쓰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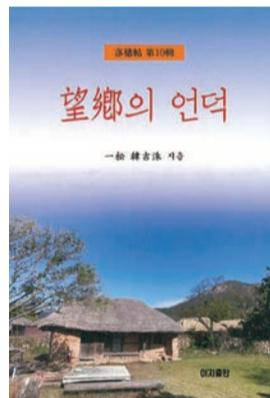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중앙중친회에서는 어떤책자의 구매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일이 없습니다.

중앙중친회를 사칭하며 책자구입을 권유하는 전화가 오면 중앙중친회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수회장, 落穂帖 제10집 「望郷의 언덕」 출간

서원군문중 길수회장(시인, 수필가)이 지난 3월 낙수첩 제10집 「望郷의 언덕, 사진」을 출간(이지출판)하였다. 한백문학과 현대문예를 통해 수필과 시로 등단, 늦깎이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길수회장은 2010년 10월에 낙수첩 제1집 「금혼일」을 출간한 이래 금년에 목표한 제10집을 출간하였다.



회원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시고 (재)청주한씨 장학회 감사와 (재)임피중학교 동문 장학재단 이사장직을 수행 중이신 一松 吉洙회장의 정열과 노익장에 경의를 표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2회 서울 시우문학상과 한백문화사 2018년 수필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서울시 시우문인회장과 한백문화가협회 수석부회장, 현대문예작가회

시조묘역 환경정비·정화사업 봉사

세계평화여성연합 충북도지부 주관

지난 4월 14일, 세계평화여성연합 창립 기념일을 맞아 세계평화여성연합 충북도지부 집행부 및 회원 50여명은 청주한씨 시조묘역을 찾아 묘역일원에 수십 상자 분량의 꽃나뭇을 성심성의껏 식재하고 물주기와 잡풀제거, 청소 정리 등 환경정비·정화사업을 하는 봉사활동을 해주셨다. “청주한씨의 기상을! 일편단심의 정신으로 충북의 딸들이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시조묘역 환경정화 기념

에도 자발적인 참여로 정성을 다해 아낌없이 봉사를 해주신 세계평화여성연합 충북도지부 집행부 및 회원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일가 축하합니다! 谷神不死! 청주한문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연고순)



한기호 (1952년생)

국민의힘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육군사관학교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
18·19·21대 국회의원



한정애 (1965년생)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 병
노팅엄대학교 산업공학박사
19대 환경부장관
19·20·21대 국회의원



한병도 (1967년생)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 을
원광대학교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17·21대 국회의원



한민수 (1969년생)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 을
서강대학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민일보 정치부장



한창민 (1973년생)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주대학교교육대학원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노무현재단 경영기획본부장



한준호 (1974년생)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 을
가톨릭대학교대학원
MBC아나운서
21대 국회의원



한지아 (1978년생)

국민의힘
비례대표
가톨릭대학교 의학박사
을지외과대학 교수
WHO담당관(재활&고령화)

운영회비(1~4월)		단위:원
이름	금액	
기동 부회장(현령공파회장)	1,000,000	
기은 부회장(이양공파회장)	1,000,000	
석오 부회장(중정공(휘방도)회장)	1,000,000	
석희 부회장(경기 고양시)	1,000,000	
성익 부회장(문양공파회장)	1,000,000	
연구 부회장(절제공파회장)	1,000,000	
유광 부회장(찬성공파회장)	1,000,000	
종업 부회장(경기 남양주시)	1,000,000	
갑수 부회장(대전시회장)	500,000	
근우 부회장(세마공노산총회장)	500,000	
삼랑 수석부회장	500,000	
영교 부회장(전북도회장)	500,000	
이덕 부회장(경기도회장)	500,000	
종수 부회장(장학부회장)	500,000	
홍교 운영위원(세건공중회장)	500,000	
추태 상임고문	200,000	
광수 자문위원(서울 영등포구)	200,000	
길수 자문위원(서울 광진구)	200,000	
달섭 자문위원(서울 동작구)	200,000	
상영 자문위원(경기 의정부시)	200,000	
창섭 자문위원(인천 강화군)	200,000	
춘섭 자문위원(경기 성남시)	200,000	
상렬 감사(서울 도봉구)	200,000	
경석 겸임이사(서울 강남구)	200,000	
권석 겸임이사(충북 보은군)	200,000	
권우 겸임이사(서울 양천구)	200,000	
규석 겸임이사(경기 김포시)	200,000	
기만 겸임이사(서울 송파구)	200,000	
기선 겸임이사(서울 성동구)	200,000	
기조 겸임이사(구미시회장)	200,000	
기조 겸임이사(서울 강동구)	200,000	
기학 겸임이사(서울 광진구)	200,000	
기화 겸임이사(경기 화성시)	200,000	
만길 겸임이사(경기 안산시)	200,000	
문희 겸임이사(노림익상총회장)	200,000	
병동 겸임이사(경주시회장)	200,000	
복연 겸임이사(충북 청주시)	200,000	
상식 겸임이사(경북 경산시)	200,000	
상웅 겸임이사(서울 강남구)	200,000	
순자 겸임이사(부녀부장)	200,000	
승인 겸임이사(경기 안산시)	200,000	
영학 겸임이사(경기 여주시)	200,000	
완수 겸임이사(서울 노원구)	200,000	
용호 겸임이사(경북 경산시)	200,000	
육명 겸임이사(경기 안산시)	200,000	
윤동 겸임이사(경기 김포시)	200,000	
정동 겸임이사(경기 의정부시)	200,000	
정석 겸임이사(서울 송파구)	200,000	
태호 겸임이사(인천 중구)	200,000	
택영 겸임이사(서울 송파구)	200,000	
현석 겸임이사(충남 당진시)	200,000	
현수 겸임이사(경기 고양시)	200,000	
황 겸임이사(경기 고양시)	200,000	
영식 운영위원(서울 서초구)	200,000	
귀성 겸임이사(전북 전주시)	100,000	
기형 겸임이사(경기 안산시)	100,000	
상일 겸임이사(서울 노원구)	100,000	
상필 겸임이사(경기 하남시)	100,000	
성규 겸임이사(경기 광주시)	100,000	
수창 겸임이사(서울 성동구)	100,000	
우선 겸임이사(서울 서초구)	100,000	
진명 겸임이사(충남 논산시)	100,000	
경모 운영위원(제주도 제주시)	100,000	
균선 운영위원(대전 서구)	100,000	
기덕 운영위원(강원 춘천시)	100,000	
기송 운영위원(충남 서산시)	100,000	
길우 운영위원(충남 서산시)	100,000	
동석 운영위원(경기 화성시)	100,000	
동진 운영위원(경기 화성시)	100,000	
동훈 운영위원(경기 파주시)	100,000	
만중 운영위원(경기 성남시)	100,000	
만홍 운영위원(서울 송파구)	100,000	
범석 운영위원(서울 구로구)	100,000	
상분 운영위원(경기 안양시)	100,000	
승욱 운영위원(경기 안산시)	100,000	
영선 운영위원(인천 강화군)	100,000	
임동 운영위원(경기 남양주시)	100,000	
재윤 운영위원(광주 북구)	100,000	
진덕 운영위원(서울 동작구)	100,000	
천우 운영위원(전북 김제시)	100,000	

철웅 운영위원(충남 당진시)	100,000
철희 운영위원(대전 서구)	100,000
합계	22,100,000

일반찬조헌성금(1~4월)		단위:원
이름	금액	
태락 중앙회장	4,500,000	
추태 상임고문	3,000,000	
성익 부회장(문정공파회장)	3,000,000	
기천 자문위원	3,000,000	
장도공파하다리리종중	200,000	
상일(전)첨정공파회장	200,000	
삼랑 수석부회장	200,000	
문간공파중흥회장(석구)	200,000	
참의공파(취중지)중흥회장 근준	100,000	
합계	14,400,000	

개인증보비(1~4월)		단위:원
이름	금액	
태수(부산 부산진구)	200,000	
기대(서울 강동구)	100,000	
기동 부회장(현령공파회장)	100,000	
길수 자문위원(서울 광진구)	100,000	
달섭 자문위원(서울 동작구)	100,000	
대수(경북 안동시)	100,000	
석우 겸임이사(경기 용인시)	100,000	
재윤 운영위원(광주 북구)	100,000	
종현(충남 금산군)	100,000	
진섭(서울 서초구)	100,000	
훈섭(전남 광양시)	100,000	
영태(경기 용인시)	90,000	
광렬(부산 연제구)	50,000	
기석(경기 남양주시)	50,000	
기석(서울 강동구)	50,000	
상분 운영위원(경기 안양시)	50,000	
성명, 주소불명	50,000	
우선 겸임이사(서울 서초구)	50,000	
윤동 겸임이사(경기 김포시)	50,000	
정수(광주 동구)	50,000	
창우(서울 송파구)	50,000	
추태 상임고문	50,000	
상갑(서울 강동구)	40,000	
경현(경기 부천시)	30,000	
광수(대전 서구)	30,000	
균선(대전 서구)	30,000	
기석(서울 노원구)	30,000	
기준(경기 부천시)	30,000	
만준(충남 태안군)	30,000	
명희(광주 서구)	30,000	
문교(충북 청주시)	30,000	
삼식(강원 원주시)	30,000	
상길(경기 수원시)	30,000	
상은(서울 관악구)	30,000	
상준(경기 김포시)	30,000	
상훈(경기 하남시)	30,000	
성규(경기 구리시)	30,000	
영상(경기 양평군)	30,000	
용희(충남 예산군)	30,000	
원렬(전북 완주군)	30,000	
윤교(경북 포항시)	30,000	
의백(전남 순천시)	30,000	
의성(경기 화성시)	30,000	
일웅(경기 남양주시)	30,000	
장선(전남 보성군)	30,000	
재훈(경북 문경시)	30,000	
정식(서울 동작구)	30,000	
정웅(전남 보성군)	30,000	
중윤(전남 나주시)	30,000	
충수(충북 진천군)	30,000	
평전(경기 수원시)	30,000	
홍교(대구 남구)	30,000	
강현(충남 아산시)	20,000	
경석(경기 시흥시)	20,000	
관영(경기 용인시)	20,000	
규상(경기 김포시)	20,000	
규성(인천 계양구)	20,000	
기엽(경남 사천시)	20,000	
길수(세종시 전통면)	20,000	
대규(인천 부평구)	20,000	
대해(경북 경주시)	20,000	
범수(강원 춘천시)	20,000	
병덕(서울 강북구)	20,000	
봉기(경기 용인시)	20,000	
상덕(서울 서대문구)	20,000	
상무(경기 화성시)	20,000	
상욱(충남 청양군)	20,000	
상필 겸임이사(경기 하남시)	20,000	
수원(노림익상총중)	20,000	
양수(경남 창원시)	20,000	
영섭(전남 나주시)	20,000	
윤석(충남 서천군)	20,000	
웅섭(경기 성남시)	20,000	
재술(전북 김제시)	20,000	
재식(경남 함양군)	20,000	
정노(서울 강남구)	20,000	
정수(서울 광진구)	20,000	
종대(경기 하남시)	20,000	
준석(경남 하동군)	20,000	
중섭(서울 영등포구)	20,000	
창섭 자문위원(인천 강화군)	20,000	
철수(서울 도봉구)	20,000	
춘섭 자문위원(경기 성남시)	20,000	
혁섭(충북 청주시)	20,000	
희달(경기 안산시)	20,000	
영성(충북 청주시)	15,000	
합계	3,375,000	

태락회장님께

재선에 성공하신 태락회장님!
정중동의 4과전 열전에서 28대 중앙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100만 일가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년전 27대 회장 선거에서의 상처뿐인 과열 경쟁을 자제하고 조용한 가운데서도 열띤 경쟁은 4분 후보자들을 비롯해 우리 일가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것으로 우리 선거 사에 귀감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민주화의 꽃을 피운 것입니다. 4분 후보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흔히 선거에는 부정 부패가 회자되고 잡음이 시끄럽기도 하여 구성원 간 암투와 질시로 고소고발까지 가는 상처를 입기도 하는데 이번 28대 회장 선거는 대 내외 어느 선거에 못지않은 모범 선거였다고 우리 모두 입을 모아 왔습니다. 수준높은 우리 일가들의 자랑이요, 축복입니다. 앞으로는 회장 선거에서 원로회의 사전 조정에 의한 추대론은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회장님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가 있다면 보다 빨리 치유하는데 노력하시겠다고 대화합을 제1조로 공약하셨습니다. 타 후보를 지지한 일가들을 더 뜨거운 가슴으로 안아



한영교 전북회장

주시어 대화합의 장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중앙총친회 사무실 공간 확장 운영 활성화는 오랜 숙

제였습니다. 회장님의 강한 추진력으로 새로운 큰 장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역사관 건립 등 여타 많은 공약들도 회장님의 강한 드라이브로 추진하시면 우리 100만 일가들은 하나 같이 힘을 모을 것입니다. 공학 박사의 해박한 건축술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태락회장님! 회장님 뒤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이 민족의 발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는 기라성같은 일가들을 비롯한 100만 일가들이 뒤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사 발전은 사회 발전으로 더 나아가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성씨인 청주한씨 삼한갑족의 후예답게 어느 면에서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모두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 앞장에 회장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는 회장님의 끊임 없는 열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초심을 잃지마시고 종사를 위해 언제나 지 금처럼 건강을 누리소서!

범수(강원 춘천시)	20,000
병덕(서울 강북구)	20,000
봉기(경기 용인시)	20,000
상덕(서울 서대문구)	20,000
상무(경기 화성시)	20,000
상욱(충남 청양군)	20,000
상필 겸임이사(경기 하남시)	20,000
수원(노림익상총중)	20,000
양수(경남 창원시)	20,000
영섭(전남 나주시)	20,000
윤석(충남 서천군)	20,000
웅섭(경기 성남시)	20,000
재술(전북 김제시)	20,000
재식(경남 함양군)	20,000
정노(서울 강남구)	20,000
정수(서울 광진구)	20,000
종대(경기 하남시)	20,000
준석(경남 하동군)	20,000
중섭(서울 영등포구)	20,000
창섭 자문위원(인천 강화군)	20,000
철수(서울 도봉구)	20,000
춘섭 자문위원(경기 성남시)	20,000
혁섭(충북 청주시)	20,000
희달(경기 안산시)	20,000
영성(충북 청주시)	15,000
합계	3,310,000

장도공파하다리리종중	200,000
전북도총친회(영교)	200,000
합계	2,310,000

시조탄신기념 축하행사 헌성금		단위:원
이름	금액	
갑수 명예회장	1,000,000	
태락 중앙회장	1,000,000	
의구 제전부회장	200,000	
평간공파봉찬회(윤동)	200,000	
삼랑 수석부회장	100,000	
서울시총친회(태락)	100,000	
충성공파중흥(선교)	100,000	
참의공(취중지)파(근준)	100,000	
참판공파중흥(일웅)	100,000	
대전총친회(갑수)	100,000	
문정공파중흥(성익)	100,000	
황(문양공파)	100,000	
기학(검교참판공파)	100,000	
임동(월포공문중)	100,000	
서울수도권청장년회장 갑전	100,000	
상분(평해공파문중)	50,000	
합계	3,550,000	

장학기금 납부내역(1~4월)				단위:원
교유번호	이름	금액	누계	
122	송산단위장학회(기인)	10,000,000	51,500,000	
808	장도공파하다리리종중	500,000	8,300,000	
2063	천식(인천단위)	1,000,000	1,200,000	
2247	재국(인천단위)	100,000	100,000	
1978	동욱(대전총친회)	100,000	1,540,000	
2248	장석(대전총친회)	300,000	300,000	
2249	성모(대전총친회)	100,000	100,000	
합계			12,100,000	



한길수 (서원군파회장·시인·수필가)

종훈宗訓 이야기



눈미 한갑수 박사가 필자에게 보내준 우리 한씨 종훈.

어려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 교무실에 들어가면 校訓인지 모르지만 [弘益人間]이라는 글이 액자에 넣어서 교장 선생님의 의자 뒤편 벽에 모셔져 있는 걸 보았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윤리의 바탕이 되었던 홍익인간의 정신이란 “너희는 잘 자라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인간이 되어라”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이르는 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좋은 뜻의 홍익이라는 말이 일제의 잔재라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니 글씨 그 내용이 버려야 할 것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일제강점기이어서 급훈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겠으나 4학년 때의 급훈級訓은 [성심誠心 謹]이었다. 담임선생님이 급훈에 대하여 설명해 준 것이 기억에 남아 있다. “성심껏이란 너희들이 공부도 성심을 다해서 하고 운동도 성심껏 하고 집에 가서 농사일 도와주는 것도 성심껏 하라는 것이니 너희는 모든 것을 성심껏 함으로써 우리나라 새 나라의 참된 일꾼이 되는 것이다.”

그 뒤에 서울에 올라와서 셋집과 관사를 전전하다가 결혼 11년만인 1971년 처음으로 광진구 구의동에 내 집을 마련하여 이사하였다. 이때 이사기념으로 친구 최동석으로부터 [춘풍추수春風秋水]라는 가훈家訓을 붓글씨로 쓴 액자를 받았다. 그 당시 최동석은 서예의 대가 윤길중尹吉重 선생으로부터 서도를 배워 이 분야에 일가견을 이루고 있었다. 春風 秋水란 對人與 春風이요, 對事與 秋水라는 글인데 민원인에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공직에서의 일 처리는 가을 물처럼 투명하고 맑게 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그 당시 공직에 근무하고 있던 필자에게 딱 들어맞는 글귀이기 에 이를 받아 거실 중앙에 걸어놓고 수시로 보며 그리 처신하도록 노력을 해왔다. 초등학교 여자 동문인 안병현이 충주에 살고 있는데 문학에 조예가 있어 2000년경 [문학세계]에 수필로 등단을 했다. 그뿐 아니라 글씨에도 일가견이 있어 단독 서예 전시회를 연다기에 버스를 대절하여 많은 동문들이 참관한 일이 있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20여 명의 동문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수안보 온천에서 1박을 하면서 지나간 옛날이야기가 튀어 나왔다. 꾀벗동이 친구들이 부여로 수학여행을 갔던 이야기로 배꼽을 잡았다.

초저녁잠이 많아 꿀아떨어진 놈들의

고추를 실로 묶어놓고 불을 끄고 한 놈이 불이야! 하니 잠자던 놈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려다가 고추가 아프다고 한쪽 발로 엉덩춤을 추는데 불을 켜니 그 장관이 백일하에 드러나 한바탕 멋진 쇼로 끝났던 일을 상기하고 이제는 그 고추가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검사를 해보자고 덤비는 친구도 있었다.

필자는 2004년 초까지 단독주택에 살다가 공동주택인 아파트로 이사를 왔더니 안병현이 그 기념으로 [백인당중 유태화百忍堂中 有泰和]라는 글을 써서 액자에 넣어서 보내왔기에 이를 거실에 걸고 지금까지의 가훈을 변경하여 이를 새 家訓으로 삼아 아이들이 모일 때마다 “모든 것을 참는 집안에는 화목이 있고 복이 온다”는 걸 주지 시키고 있다.

필자가 공직에서 퇴직한 뒤에 청주 한씨 중앙회에 찾아갔더니 어떤 어른이 대뜸 한다는 말씀이 “우리 한씨의 宗訓이 무언지 아는가?” 하고 묻기에 모른다고 답변을 했더니 종훈도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올 자격도 없다며 필자를 한방으로 KO 시키려고 펀치를 날린 일이 있다. 종친회라는 모임이 조상을 받들고 종현간에는 항렬이 높거나 나이가 많은 분을 존경하는 “行高年長”을 중요시하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물어 물어서 찾아온 신출내기 종원에게 하는 첫인사치고는 아주 고약했다. 이는 마치 교도소에서 고참이 새로 들어오는 죄인에게 여러 가지 모멸감을 안긴다는데 처음으로 찾아온 일가에게 감방 내의 멋모르는 신출내기 죄인에게 통과의례를 시행하듯 하여 기분이 많이 상했다. 이곳은 한핏줄이 흐르는 일가들의 모임인 종친회라는 조직인데 이렇게 여지가 없고 물기 없는 고비사막 같은 모임인 줄은 미처 몰랐다. 그런 뒤에는 종훈을 구해서 열심히 읽고 아이들에게도 주지시키는 일에 게으름 부리지 아니했다.

淸州 韓氏 宗訓
 忠孝德禮 忠孝德禮 忠孝德禮 忠孝德禮
 勤謹恭儉 勤謹恭儉 勤謹恭儉 勤謹恭儉
 忠과 효, 덕과 예로서 자기 행동을 착하게 하고 부지런하고 조심하여 공손한 마음과 검소한 생활로 가업을 일으킨다. 는 내용으로서 시조 할아버지의 신도비문神道碑文에 있는 내용의 일부이란다. 하루는 중앙회에 갔더니 예의 그 어른이 앉아 있다가 필자를 부르기에 그분 책상 앞으로 갔더니 무언가 한참 뜸을 들이더니 하는 말 “한 씨라고 찾아 왔는데 무슨 파야?”
 “양절공파입니다.” “양절공파 밑에 또 파가 있지?”
 “14세 공안공(인수대비의 큰 오라버니)파 인데요”
 “참으로 속 썩이네!” “.....”

나중에 알아보았더니 이 일가분은 감사원에 근무하다가 정년퇴임을 한 분으로서 나이는 필자보다 위이나 필자와는 같은 항렬이었고 14세 공안공의 아드님인 15세 이조참판공인 휘 健 할아버지의 2남으로 16세인 어모장군 휘 세좌 世佐공의 후손이었고 필자는 3남인 승지공 휘 세신世信공의 후손이어서 16세에서 갈라진 비교적 가까운 일가이었다. 그런데도 반갑다는 말이 나와도 모자랄 판에 왜 속 썩인다는 말이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했다.

필자가 종사에 문외한이어서 앞으로 자기 속을 썩일 것 같다는 이야기인지 반갑다는 역설적인 표현인지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내막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다음에 우리 두 사람 사이가 좀 이무를 때가 오면 물어보려고 잔뜩 버리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들으니 작고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속 썩이는 숙제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거실 중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쓰여 있는 액자가 걸려 있다. 청주한씨 宗訓이다.

忠孝德禮 以善其身 忠孝德禮로 이선기신하고

勤謹恭儉 以業其家 근근공검으로 이업기가 하라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에겐 덕과 예로서 행동을 착하게 할 것이며 근면하고 공손하며 검소한 생활로서 자기 가업을 잘 유지하라.

이 액자의 글씨는 1990년경 한글 학자 눈미 한갑수 박사께서 직접 써서 필자에게 전달한 것이었다. 청주한씨 중앙회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통과의례로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이런 관문을 통과하고 입문한 지 3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7명의 중앙회장을 모시면서 필자의 작은 힘도 보탬이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필자도 한씨 중앙회의 이사 부회장 자문위원 등으로 봉사를 해왔고 5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청주한씨 장학회의 기금은 현재 37억원인데 이 장학회의 감사를 맡고 있다. 그리고 청주 한문의 양대산맥이라고 하는 10세 서원군파의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2015년 1월 25일 종로 하림각에서 청주한씨 원로회의가 있었다. 원로회원으로 농림부 장관을 하였던 갑수 당시 중앙회장, 국무총리를 하였던 명숙과 덕수(현재도 총리로 재임), 감사원장을 하였던 승현, 승주 전 외무부 장관, 양수 전 충남지사, 영실 숙명여대

총장, 상률 국세청장, 기호 7교 대동보도유사, 추태 중앙회 감사, 준석 서울시 회장, 성섭 성룡 중앙회 부회장, 동석 삼재 관리위원장 외에 필자도 중앙회 부회장 겸 서원군파 회장으로서는 원로회의의 말석을 차지했었다.

이 자리에서는 차기 회장의 선임문제를 논의했다. 원래 청주한씨의 중앙회장 자리는 원로회의에서 책임자를 후보로 선정하면 총회에서는 박수로 인준하는 전통이 이어져 왔었다. 그래서 이날도 원로들이 모여 갑수 회장의 다음을 이을 후임선출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했었다. 그래서 충남도지사를 역임하신 양수 일가를 다음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만장일치의 결정을 하고 모두가 박수로 막을 내렸다.

그런데 이를 추진할 정기총회가 1개월 정도 남았는데 김새는 소리가 들려왔다. 중앙회장은 정기총회 석상에서 우리가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원로회의 결정을 박수로 추진하던 절차인 간접선거를 직접선거로 하겠다는 주장이었다.

국내정치도 여야가 극한대립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정국인데 청주한씨 종사문제도 예측불허의 앞날이 다가왔다. 지금까지 우리 청주 한씨 중앙회장은 원로회의에서 진지한 논의 끝에 후보가 결정되면 총회에서는 박수로 추대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왔는데 어느 지역에서 그 지역의 대표도 원로회의에 참여를 해서 다 같이 결정한 사항인데도 뒤로 돌아가서 반기를 드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었다.

이때 갑수 회장님이 임원회의를 열어 이를 논의하게 되었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으나 마땅한 묘책이 없었다. 그래서 필자가 갑수 회장님에게 건의하였다.

“이것도 하나의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직선으로 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총회 날 회장에 뜻이 있는 종현은 출마하도록 해서 투표의 결과로 결정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로 틀을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추대하는 방안을 그대로 밀고 간다면 그날 원로회의에서 추대했던 분이 참석하여 그 소란스러운 현장을 보고는 그분은 그냥 퇴장하실 것입니다.”

갑수 회장께서는 이를 받아들여서 중앙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선제도를 바꾸었다. 그러나 거기에도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등 우리 한문의 훌륭한 전통과는 동떨어진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 장래가 걱정스러웠다.

한상기 박사 과학기술유공자 증서 헌정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상기회장(중앙), 만교회장(우)과 장녀 수진(좌)

1971년 서울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떠난 한상기 박사(사진 중앙)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국제열대농업연구소(IITA)에서 24년간 아프리카의 주요 식량 작물을 개량해 보급하였다. 나이지리아인의 주식이던 카사바를 개량해 만든 ‘수퍼 카사바’는 41국에 보급돼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했으며 한 박사가 개량한 암·고구마·바나나 등은 66국에서 재배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의 농업 전문 인력 700여 명도 양성한 한상기 박사는 금번 4명의 선정유공자 중 유일하게 생존하신 분으로 친지와 후학, 관계자 분들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았다.

한상기회장은 지난 2022년도에는 대한민국 농업기술진흥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바 있다.

(장도공파만교회장)

작물육종학자로서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에 기여한 한상기 박사(전 서울대 교수, 참의공과중중회장)가 5월 2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헌정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대통령 명의의 과학기술유공자 증서를 수여받았다.

여수상공회의소 신임 한문선 회장 취임

여수시 지역사회상생발전기금 1억원 전달

여수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15일 썬버홀에서 여수상의 전·현직 회장 및 상공의원을 비롯해 주요기관·단체장, 도의원, 언론인, 회원업체 대표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한문선회장(사진)의 취임식을 가졌다

한문선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갈등과 반목을 넘어 포용의 리더십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산단이 화합하고 공존하며 함께 성장하는 상공회의소를 만들 것”이라며, 중점 공약사항으로 “국가산단 내 여천선 철로 재활용을 통한 용지 확보, 교통문제해소, 공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정부 건의사항을 조속히 만들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경제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과 함께 여수지역과 국가산단을 아우르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열린 상의, 일하는 상의, 함께하는 상의를 만들어 여수경제를 뒷받침 하고 있는 수산, 관광, 산업 3박자가 잘 어



우러질 수 있도록 여수경제의 마에스트로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서 신임 한문선회장은 지역사회상생발전기금 1억원을 여수시에 전달했다.

지난 2월 28일 제25대 상의 의원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25대 1차 임시의원총회를 통해 신임 회장 겸의 추대로 선출된 한문선회장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집단 에너지 사업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문과 향산물류 사업을 하는 보임그룹을 경영하고 있다.

(상철광주청장년회장)

상원회장, 제25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에 선출

광주시종친회장 및 디스코(주) 회장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20일 대회의실에서 92명의 제25대 의원 및 특별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대 제1차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한상원 디스코(주) 회장(사진, 공안공파)이 92표 중 52표를 얻어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현재 광주광역시종친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상원 회장은 해남군 출신으로 광주상고와 조선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2003년 광주상공회의소 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20년 이상 광주상공회의소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봉사해왔다.

또한 흥인학원 영산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며,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광주지검 범죄예방협의회 회장, 전남레슬링협회 회장, 민주평통 전남도 부의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한상원 회장은 취임 인사말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김보곤 후보와 그의 지지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밝혔던 양대노총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한 산업평화선언을 이끌어 내고, 광주·시·언론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군공항 이전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그 부지에 미래산업을 유치해 지역의 젊은이들이 꿈과 희



망을 갖고 광주로 모여 역동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광주상의를 지역경제 핵심정책기구로 격상시키고, 지역 내 산단에 입주해 있는 제조기업들을 상의에 참여시켜 광주상의가 광주경제 활성화의 선두에서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광주·전남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은 상의의 소명이요 우리 기업인의 책무라면서, 화합과 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5세에 200만원으로 창업하여 20여년이 지나서야 자립적 기업을 이룬 한상원회장은 선배기업인들의 도전적이며 혁신적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오늘의 기업으로 성장한 디스코(주)는 광주에 1개 공장, 화순에 2개 공장, 충남 당진 3만평 부지에 2개 공장, 전북 군산에 2개 공장을 운영 중인 코스피 상장사다.

(상철광주청장년회장)

운영회비 및 종보구독료 납부 안내

존경하는 임원 및 일가여러분!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3고현상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입니다만 송구한 마음으로 운영회비 및 종보구독료 납입을 부탁드립니다.

임원 및 일가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운영회비와 종보구독료는 청주한문 100만 종친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중앙종친회의 운영 재원입니다.

임원 및 일가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계좌송금 - 국민은행 009901-04-016841, 예금주 청주한씨중앙종친회
- ◆ 종보에 첨부된 지로용지 이용 (입금자 성명 및 주소 등 기재)
- ◆ 성명만으로 입금 시 중앙종친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02) 720-6370/1)

청주한씨중앙종친회